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배포일시	2013. 10. 14. (월)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419 호 전화 02)784-2820, 팩스 02)788-0153 담당 : 오범석 비서관(010-9121-2152)			

지방 항만 가동률 낮아 혈세 낭비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 속초항 11배, 제주항 및 서귀포항 1.7배, 장항항 1.6배
전체 항만투자예산은 감소, 물동량 부족한 항만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
지방항만, 정확한 수요예측 기반으로 적정하역능력보다는 최대하역능력
기준으로 항만투자 진행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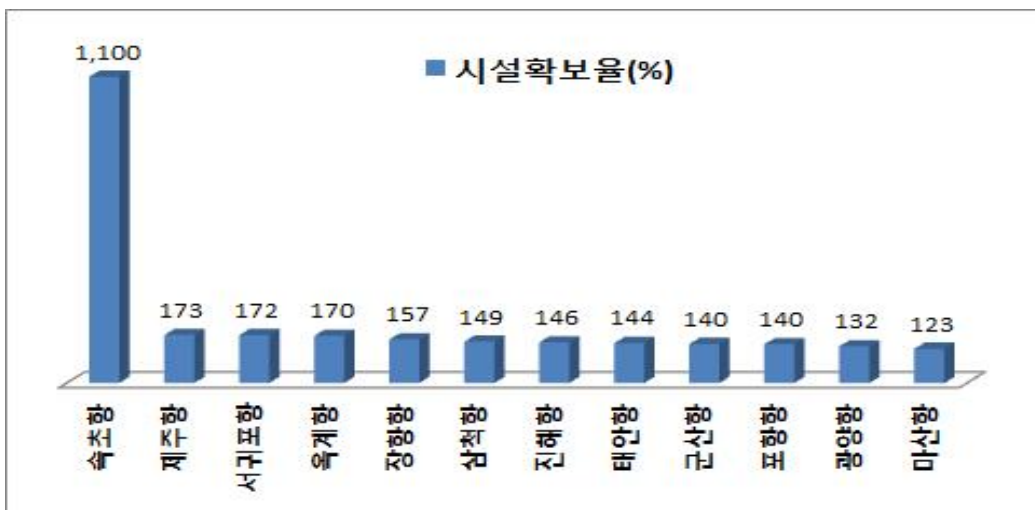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게 제출한 <항만개발 투자예산현황>자료를 따르면, 정부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간 항만개발에 투자한 예산이 총 24.2조원, 연평균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 결과 전국 항만들의 평균시설확보율(당해연도 항만물동량/전년도말 하역능력)은 1999년 86.5%에서 2012년 99.7%로 늘어났다.

하지만 항만시설별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2012년 전국 항만별 시설확보율 현황>을 보면 부산항은 85.6%, 인천항 102.7%인 반면 속초항은 1,100%, 제주항은 172.5%, 서귀포항 172.2%, 장항항 156.6% 등으로 14개 항만은 시설 대비 물동량이 크게 부족하여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테이너 부두의 시설확보율의 경우, 마산항은 1,250%, 군산항은 430%, 광양항은 250.7%, 평택·당진항은 185.7%로 나타났으며 서귀포항, 옥계항, 삼척항, 포항항, 군산항 등은 화물량이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항만을 제외한 항만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자는 2013년 6,209억원에서 2014년 6,0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으나, 이 중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이 적은 일반항만에 대한 투자금액은 오히려 2013년 766억원에서 2,104년 1,110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항만시설별 투자액 현황>을 보면 평택·당진항 421억원, 군산항 294억원, 광양항 234억원, 속초항 56억원 등으로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며, 예산 증가율을 보면 시설확보율이 1,100%인 속초항은 전년 대비 273% 증가¹⁾, 시설확보율 140%인 포항항은 37% 증가²⁾, 시설확보율 132%인 광양항은 95%나 증가³⁾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지방의 항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 항만을 건설해 왔으나, 항만이 갖는 인프라적 속성으로 인해 건설 후에는 하역능력 과잉의 문제가 따라왔다. 따라서, 지방항의 경우 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적정하역능력보다는 최대하역능력 기준으로 항만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



1) ‘13년 15억원→ ‘14년 56억원

2) ‘13년 19억원→ ‘14년 26억원

3) ‘13년 120억원→ ‘14년 234억원

